

월요광장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도록 격려 하는게 진정한 사랑

김경란
광주여자대학교 교수 유아교육과

하루가 다르게 봄꽃들의 색이 고와지는 요즘, 자연을 찾아 나들이하는 가족들 속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어린 아이부터 고등학교나 대학생까지 자녀와 함께 등산을 하는 가족을 만난다면 저는 유심히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 등산을 하면서 엄마는 배낭 등을 지고 아빠는 다섯 살 남짓 된 아이를 등에 업고 산을 오르는 가족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자신들이 경험한 산에 오르는 기쁨을 아이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나 봅니다. 틀림없이 아빠와 엄마는 몸도 건강해지고 힘들게 산에 오른 만큼 정상에 올랐을 때 큰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산에 오르다 보니 또 한 가족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힘이 들어

발걸음이 자꾸만 느려지고 있었는데 그 순간 아빠가 큰 소리로 "와! 우리 민지가 정말 힘든데도 아빠보다도 더 앞장서서 씩씩하게 잘 가고 있네!"라고 격려하면서 혼자 앞장서서 걸던 자녀의 어깨를 쓰다듬어주고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외동아이가 많은 요즘에는 아이가 버리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요구를 다 들어주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불편해 하면 한걸음에 달려가 안아주고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기도 전에 부모님은 아이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주시고 합니다.

아이가 혼자서 해보다가 실수할 틈도 주지 않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신겨주고, 닦아주면서 부모는 아이의 손과 발이 되어 모든 것을 해결해줍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조금 성장한 어느 날 부모님께서는 아이에게 "너는 왜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니?" 혹은 "너는 왜 그렇게 참을성이 없나?"라고 말하면서 자녀를 비난합니다.

자녀의 어린 시절부터 뒤돌아보고 생각해본다면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님께서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참여하면서 일을 마치고 느낄 수 있었던 기쁨까지도 부모님께서 아이 대신 즐긴 것입니다.

결국 자녀가 해야 하는 일들을 부모님께서 대신 해주신다면 아이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아이의 자기조절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성공의 열쇠인 자기조절력을 빼앗게 됩니다.

아이가 어떤 일을 할 때 쉽게 좌절하고 포기한다면 우선 부모님의 태도부터 살펴보십시오. 아이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상황에서도 아이가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아이가 자신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기대려 주어야 합니다.

참을성이 있고 쉽게 포기하는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부모님이 항상 준비해놓았기 때문에 참을 경험을 해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힘든 일을 해냈을 때의 성취감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참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렸다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끝까지 도전해서 성공을 경험해본 아이라면 자신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갈 수 있게 됩니다. 조금은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마쳤을 때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해내는 것이 훨씬 가치 있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니다.

산을 천천히 올라가면서 볼 수 있는 작은 들풀, 쟁인 낙엽 위에 빼죽이 고개 내민 어린 나뭇가지에서 움트는 연초록 잎들을 살펴보고 숨을 몰아쉬면서 산에 오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아이가 맛볼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아이의 참을성과 인내, 자제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아이의 발로 느리게 걷더라도 아이의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다려주세요. 부모님의 등에 업혀 산에 올라서는 결코 정상에서의 기쁨을 맛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자녀에게 쉬운 문제부터 풀어보게 하고 아이가 문제를 풀면 "우리 정우가 혼자서도 문제를 다 풀어서 참 대견하구나!" 하며 아이를 칭찬해줍니다. 또 두꺼운 문제집은 조금씩 나누어서 풀어보게 하고 한 권의 문제집을 다 풀 다음 전체를 다시 끓여서 보여준다면 아이는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약간 어려운 문제에도 아이는 부모에게 청찬받았을 때의 좋았던 기분을 생각하면서 집중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반복하면서 아이는 점차 스스로 해냈다는 자부심과 함께 앞으로는 더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법조칼럼

3월의 마지막 월요일에...

강성두
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
광주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법원 앞 광장에는 벚꽃 나무 몇 그루가 있습니다. 평일에는 교외에 나갈만한 시간을 낼 수가 없고 주말에는 사람들에 치이는 게 싫어 벚꽃이 거리에 흘러나온 것을 보는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지 몇 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하는 곳 가까이에 있는 단 몇 그루의 벚꽃나무 덕분에 봄이 왔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변호사를 시작한 지 채 몇 년이 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자기만의 기준에 실망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관대한 기준을 세우지만 타인의 일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내세웁니다. 특히 법이 적용되는 일에 있어 이러한 이중적인 기준은 더 자주 벌어집니다. 나에게 적용되는 법은

너무나 엄격합니다. 안 되는 것도 많을뿐더러 잘못을 하게 된 경위나 사정이 있음에도 전혀 감안해주지 않고 그에 대한 별 또한 너무 가혹합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적용되어 주길 원하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른 이해와 관용은 그 일이 남의 일이 되었을 때는 사라지고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 디케(Dike)처럼 형평하길 바랍니다.

어떤 피고인은 비록 과실이기는 하나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내려진 형벌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였지만 부과된 사회봉사명령이 많다는 이유로 판결에 심한 불만을 토로했고 그 일을 변호한 저에게도 강하게 항의하였습니다. 그 피고인이 불만을 토로한 단 하나의 이유는 같은 결과임에도 자신에게만 더 가혹한 처벌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같은 짓이지만 사고의 경위나 사고 후의 과정 등에 비추어 당연히 다른 선고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 비추어보면 이번 결과가 상당한 선처를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였지만 이미 결과에 불만인 피고인을 달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피고인이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신을 하기보다는 능력 없는 변호사를 만난 결과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법관들이 경우에 따라 다른 판결을 할 수 없게 형사재판의 경우 아주 엄격한 양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분은 법관에게 주어진 재량이 많은 문제를 만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때문 비슷한 사안에 다른 결론이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자주 생기지 않도록 재량의 범위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달리 법률가인 제가 보는 관점은 많이 다릅니다.

제가 매일 겪고 있는 실제 재판은 이미 정해진 법 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고 형벌 역시 재량의 폭을 제한하는 규정이 많으며 그렇게 이미 제한된 재량을 더 줄이기 위한 많은 장치들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장치들은 사건과 같은 변호사들에게 가끔은 큰 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벽의 틈을 찾았내고 비집고 들어가 의뢰인에게 조언이라도 도움이 되었을 때 조그만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주어진 틈대로만 결과가 나온다면 아마 변호사는 재판의 결과를 미리 예상해주는 역할 외에 다른 일을 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제 개인이 인정하고 싶은 상식은 때론 정

해진 틈을 벗어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기계적으로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보다 '우리'의 권리보호에 '더' 낫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무언가를 함에 있어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엄격한 법 앞에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작은 힘을 주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답고 따뜻한 재량이 진정으로 더 아름답고 따뜻한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제 직업의 존재 가치라는 생각도 합니다.

월요일이 시작되면 항상 그렇듯이 법원 앞은 각종 소송에 휘말린 사람들을 북적거리립니다. 그 중엔 오늘 있을 재판 때문에 남들에겐 즐거웠을 3월의 마지막 주말을 걱정으로 보냈을 저의 의뢰인들이 있습니다. 예상만이 있을 뿐 그 분들에게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무게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작을 수도 있지만 자신에게는 세상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의 한 부분을 같이 하는 저 또한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렇듯 법원 앞을 떠나지 않아도 새로운 봄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몇 그루의 벚꽃나무만을 보면서 그 짧은 몇 분을 만끽해야겠습니다.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차이가 축소될수록 전세수요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 매매수요가 확대되면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최근 수도권의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국내 부동산시장은 월세 가족화 등 시장의 패러다임이 전환하면서 임대시장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또, 수도권 및 광역시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은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의 이원화·차별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시장도 시장주체별 우량도나 지역별 수급상황에 따라 차별화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경제 여건이 회복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다소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도 무조건 하락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사 보금자리론의 경우 현재 10년 만기 기준 4.3%(30년 4.55%) 대출이 가능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저 2.8%(소득 2000만원 이하, 10년 만기 기준)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가능금액 조희 및 대출신청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금리 상승 및 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 계약과 같은 계약과 대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사실이나,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조치는 근본적으로 세계 경제가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과거와 같은 집값의 급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산가격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기고

지금은 내집마련을 고민할 때

조학현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장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 '부동산 경기 지연',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수도권 집값 소폭 상승' 이런 말들은 이제 우리의 눈과 귀에 충분히 익숙해진 것 같다. 90년대 후반 IMF,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충격이 도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지울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국 우리들의 기대는 시장에 반영되고 시장의 움직임은 다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내집을 언제 마련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는 것 또한 너무 당연하고도 중요한 일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16%, 전년말 대비 0.31% 상승했으며,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42%, 전년말 대비 4.70% 상승하면서 여전히 전세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전월대비 0.71%, 전년말 대비 4.48% 상승해 주택시장 회복 기미는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지역의 경우, 서구(0.12%)·광산구(0.02%)를 중심으로 0.02% 상승세를 보였고, 전남 지역은 무안군만 전월대비 0.11%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부동산시장의 회복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장의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추가 노력에 대한 요구도 많아지고 있다. 대안주택건설협회에서도 주택의 수급과 관련한 각종 규제 및 세제 개선안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주택거래 확대를 위해서는 투자목적의 수요자를 고려해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주택구입 목적의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택 수요의 균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택 건설협회는 주장하고 있다.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차이가 축소될수록 전세수요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 매매수요가 확대되면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최근 수도권의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온 과거처럼 크지 않을 수 있어도 세종시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전진하는 도시의 집값 상승으로 전국적으로는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 저리의 고정금리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실수요 목적의 주택구입수요자라면, 현 시점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사 보금자리론의 경우 현재 10년 만기 기준 4.3%(30년 4.55%) 대출이 가능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저 2.8%(소득 2000만원 이하, 10년 만기 기준)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가능금액 조희 및 대출신청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금리 상승 및 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 계약과 같은 계약과 대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사실이나,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조치는 근본적으로 세계 경제가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과거와 같은 집값의 급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산가격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강진만 어업피해 국가가 정책 조정 나서라

3년 이상 끌어온 강진만 어업피해 보상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어민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무조정실까지 나서 수십 차례의 조정을 거쳤지만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뒤늦게 입장문을 번복하면서 그동안 협의가 생색내기였다.

하지만 해수부는 최근 일련 실무협의 회에서 '어업 피해보상'을 전제로 한 환경조사는 전례가 없다며 돌연 입장문을 바꿔 모든 협의가 수포로 돌아가버렸다. 군이나 어민들은 어업이 없다 표정이다. 국무조정실 중재에 합의해 놓고 뒤늦게 번복한 것은 주민을 농락한 것이라는 격언된 반응도 나온다.

국책사업인 댐 건설로 갯벌이 죽고 어민들의 삶길이 막막해졌다면 마땅히 인과관계를 따져 보상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그 해 7월 현장조정을 거쳐 관계기관이 어업피해조사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협의안을 이끌어냈으나 용역비 부담문제로 표류하다 이듬해 결렬됐다.

이후 국무조정실이 나서 해수부와 수

자원공사, 강진군이 참석하는 협의체를 가동시켰다. 지난해 말 환경조사는 해수부, 해류 감소 원인조사는 강진군과 수자원공사가 맡는다는 결론을 도출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듯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최근 일련 실무협의 회에서 '어업 피해보상'을 전제로 한 환경조사는 전례가 없다며 돌연 입장문을 바꿔 모든 협의가 수포로 돌아가버렸다. 군이나 어민들은 어업이 없다 표정이다. 국무조정실 중재에 합의해 놓고 뒤늦게 번복한 것은 주민을 농락한 것이라는 격언된 반응도 나온다.

국책사업인 댐 건설로 갯벌이 죽고 어민들의 삶길이 막막해졌다면 마땅히

인과관계를 따져 보상해야 한다.

문제는 고양이로 인해 끊임없이 논란이 일고 있지만 끈적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일부 자치단체들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실시한 바 있지만 한 미리당 10만 원에 이르는 비용 부담 때문에 대부분 자체들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고양이로 인해 끊임없이 논란이 일고 있지만 끈적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일부 자치단체들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실시한 바 있지만 한 미리당 10만 원에 이르는 비용 부담 때문에 대부분 자체들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고양이로 인해 끊임없이 논란이 일고 있지만 끈적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일부 자치단체들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실시한 바 있지만 한 미리당 10만 원에 이르는 비용 부담 때문에 대부분 자체들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無等鼓